



즉시 배포용: 2017년 2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 ANDREW M. CUOMO 주지사 성명서

“뉴욕주는 자랑스럽게도 스톰킹(Storm King)에 테오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의 조기 환경 보존 원칙을 육성하고 현대화한 환경보호주의를 탄생시키는 이번 전국 환경 운동의 초기부터 앞장에 섰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높은 재생 에너지 기준과 육지풍 및 태양 전력 발전에서 또다시 전국의 선두 위치에 섰습니다. 우리는 허드슨 강 및 애디론댁 공원과 같은 주의 중요한 자연 자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시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수십억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십 년의 논쟁 끝에 드디어 인디언 포인트(Indian Point)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정책이 결국 우리가 뉴욕의 공기, 토지 및 수자원을 지키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전국의 기타 주와 마찬가지로, 뉴욕은 현재 플라스틱과 종이 봉지 쓰레기, 특히는 비닐봉지를 위주로 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비닐 봉지 사용은 편하지만 재정 및 환경적 비용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Sanitation)에서는 매주 평균 1,700 톤의 비닐봉지를 수거하며 연간 1,250 만 달러의 폐기 비용이 든다고 추산하였습니다. 전주적으로 뉴욕시민의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230 억 개로 추정됩니다. 그 영향으로 쓰레기 수거 프로그램과 해변 및 해양 청소 작업을 통한 플라스틱 수거 비용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국내 많은 주와 지방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플라스틱과 종이 봉지에 비용 부과와 금지 조항 등 시도를 통하여 다양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뉴욕시는 고객이 들고 나가는 모든 상품 가방에 최소 5 센트의 비용을 부과하는 지방 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28 대 20 으로 지난 몇 년간 투표한 모든 결과 중 가장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주 입법부는 신속하게 반응하여 165 명의 찬성과 32 명의 반대인 압도적인 차이로 이 지방법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대응에는 뉴욕시의 법이 제도적인 정책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뉴욕시가 진심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는 하지만 법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장 잘못된 것은 이 법이 제정되면 판매자가 5 센트를

받음으로써 매년 1억 달러로 예상하는 금액을 비닐 봉지가 환경에 대한 영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한테 뜻밖의 수익으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뉴욕시 법안이 이 요금을 판매자의 수익으로 남기는 이유에는 정치적 편의와 법적인 불가성,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회가 판매자의 정치적 지지를 받아 법을 통과시키려면 1억 달러의 비용 지급은 너무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시에서 그들의 법적 권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요금을 정부 기관에서 수입하도록 허용하지 못했다면 주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가지 경우 중 어떤 상황이든 민간 기관에 대한 공짜 수익은 정당하지 못하며 불필요합니다.

1980 년대에 최초로 시행한 병값 공제법에도 비슷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소매상에게 공제금을 먼저 받도록 허용하여 주에서 약 16억 달러의 수익을 손실 보게 하였습니다. 2008년에 마침내 주에서 이 오류를 인정하고 법을 바꾸는 정책을 시행하여 현재의 법으로 수정한 결과 80%의 공제금이 주에서 환경 보호와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정책 절차에서 잠재적인 반대 의견을 잠재워야 함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민간 회사에 1억 달러의 보너스를 주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안은 명백한 이유가 없이 특정 기업을 제외합니다. 주류점, 배달, 푸드 트럭은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입법부는 항상 행복이 아닌 타협을 요구합니다. 너무 절충된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뉴욕의 방식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환경에 대한 플라스틱과 종이 쓰레기의 영향은 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뉴욕시민으로 살면서 저는 허드슨 강과 롱아일랜드 교외에서의 낚시 중에 비닐 봉지에 수없이 낚시줄이 감겼으며 애디론덱에서의 등산과 브롱크스의 그랜드 콩코스 따라 운전하면서 나무에 걸려있는 비닐 봉지들을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뉴욕주 전체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전주 범위의 해결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식입니다. 전주 범위에서의 어떤 해결책이냐는 문제는 토론의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주에서 상품을 담는 종이 및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해야 할까요? 세금 부과가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만약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거둘 것이며 누구한테 혜택을 주어야 할까요? 주에서 상품 매매 과정에 재활용 봉지를 공급하는 의무를 저서 저소득층 고객들에게 재정적으로 지나친 부담을 주지 말 것인가요?

이 문제들의 해답을 반드시 찾아야 하며 이 해답들은 반드시 기타 주와 도시들의 경험에 기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주 유권자들의 의견도 물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컬럼비아 특별구 및 시카고에서 모두 해당 자료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는 오늘 비닐 봉지 문제를 해결할 통일된 주 계획을 개발할 주 전역의 전담반을 설립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까닭에 이 전담반은 일반 전담반보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저는 모든 의견이 신속하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상원과 하원에서 저와 공동으로 이 전담반을 맡을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지방 정부와 관계자들도 포함됩니다. 올해 말까지 이 전담반은 보고서와 입법 제안서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뉴욕주가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